

그럴싸한 감투에 가려진 진실 게임

교육의향



노영필
교육평론가

살면서 그럴싸해 보이는 순간들이 많다. 익숙한 형식을 갖춘 결론을 만나면 진리처럼 느껴진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을 쉽게 검증할 수 없을 때, 그럴싸한 화술을 접하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반면, 살면서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자주 마주친다. 그럴싸해 보일수록 오히려 의심스러운 경우다. 과도한 포장된 신뢰도를 떨어뜨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를 믿는다. 검증할 수 없거나 항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럴싸함과 어처구니없음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태다. 식민지 시대 반민족적 행위로 역사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세력의 잔재 청산은 유야무야되었다. 독재 세력의 반칙과 특권을 누린 기생 문화도 바로잡히지 않고 정상 질서로 둔갑했다.

공부를 잘해 판검사나 고위공직자가 되면 그럴싸한 성과로 칭찬받는다. 하지만 암기식 문화가 만든 권위주의적 공부 문화조차 그럴싸한 성과주의로 포장된다. 그 문화는 지금도 학교 교육을 지키는 골격이 되고 있다.

현실은 더 무섭다. 어처구니없음과 그럴싸함이 뒤섞여 공동체 논리로 포장되어 포용력을 강요한다.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내가 죽는다. 아니, 잘나가는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논리

가 그럴싸한 합리성으로 자리 잡았다. 역지가 사회의 주류로 등극하고, 불공정이 공정한 질서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부조리와 위선을 흑독하게 바로 세우지 못한 결과가 만든 참사 아닌가. 그것도 내란공범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합의제 선거에 의해 만들어진 대선후보를 갈아치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상식과 질서를 뛰어넘는 무질서의 극치라는 말조차 부끄럽다. 한 번의 거짓말이 거짓말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든다. 그 거짓말은 거짓말의 순환고리로 돌아다니며, 결국 거짓말 공화국을 만들었다.

옛날에는 관직에 있으면 모자를 썼다. 그 모자를 관모(冠帽)라고 했다. 그것을 빗대어 '감투 썼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어처구니없는 감투 문화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 멸사봉공이어야 할 나랏일은 중요하지 않다. 더 나은 감투를 쓰기 위해 권한대행의 꼬리표를 떼고 대통령 감투를 쓰기 위해 나서기까지 한 것이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에 복귀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해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다. 주민들은 "한덕수, 우리 애기 안 들어...사진만 찍고 가더라"며 실망감을 표현했다.

첫 공개 일정으로 쪽방촌을 고른 이유에 그는 "사회적 통합을 하려면 중요한 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치인들이 표가 필요할 때만 찾아온다고 지적했다. 위생, 지원 체계의 한계, 정신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한 전 총리

는 현장을 자세히 살피거나 주민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이러한 행보는 권력자들이 감투에 집착하며 권력을 오용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내란공범 혐의를 받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상황은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진다.

반면, 스웨덴에는 타게 에를란데르(Tage Erlander)라는 정치인이 있었다. 그는 무려 23년간 총리직을 수행하며 현대 서구 민주주의 역사상 최장수 총리로 기록됐다. 하지만 그의 삶은 감투에 집착한 권력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에를란데르는 재임 중에도 퇴임 후에도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존경받았다. 그의 소탈한 거주지, 경호원 없는 퇴임 후 생활, 가족과의 평범한 일상은 평범함 속의 비범함으로 남았다. 권력을 개인의 명예나 부로 여기지 않고 철저히 위임된 책무로 삼았기에, 그의 이름은 오늘날에도 빛난다.

결국,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순환 구조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그럴싸함과 어처구니없음이 뒤섞인 사회에서 국민은 진실을 분별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럴싸한 말과 형식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는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권력자들이 감투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 래야 국민 모두가, 특히 학생들이, 교실 안 교과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배울 수 있다. TV와 언론, 사회 곳곳은 이제 진짜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社說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 미래 바꾼다

21대 대선 본격 선거운동 돌입

정당들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순천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유세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진보 진영도 선대위를 가동하며 거리로 나섰다. 광주·전남에서도 주요 정당들이 발 빠르게 조직을 정비하며 유권자와의 점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 선거다. 탄핵 사유로 지목된 계엄령 시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위협이었다.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혼란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경제 위기도 겪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선택은 가볍지 않다. 선거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생의 방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출구다.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정당이나 후보가 아니라 유권자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비전을 내세운 후보라도, 국민의 응답이 없으면 헛구호에 불과하다.

반대로 한 표, 또한 표가 모여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번 대선은 국민 각자가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는 책임의식으로 참여해야 한다. 광주 5개 자치구도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셔틀버스 운행, 가두방송 등 생활 밀착형 홍보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하다.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의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투표율이 낮으면 민의는 왜곡된다. 일부 열성 지지층의 선택이 전체 국민의 뜻처럼 포장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권리를 내던지는 것이다.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탓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투표소로 가는 일이다. 지금은 냉소보다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권력을 심판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첫 걸음은 소중한 한 표다. 나의 선택이 곧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꾼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공공비축기지, 전략거점 전남에 세워야

최명수 道의원 건의안 발의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이 전남에 공공비축기지 건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와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비축기지를 전남에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 식량부족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주장이다. 열악한 식량상황에서 상시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22.3%에 불과하다. 주식인 쌀을 제외하면 보리 쌀 자급률은 25.7%, 밀과 콩은 각각 0.7%와 0.8%밖에 되지 않는다. 식량 수급이 이 정도 취약하다면 진즉 정부 차원에서 식량비축을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발전시켰어야 한다. 선제적 대응이 충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정부가 현재 노후 비축기지 매각과 함께 권역별 대형화·현대화된 비축기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옳다.

지리적·경제적 측면에서 전남에 설

치해야 할 당위성도 많다. 당장 전남은 대규모 항만 인프라가 발달해 있고 국내 주요 곡창지대 중 하나다. 당연히 현지에 비축시설을 구축하면 생산과 수급, 비축의 효율적 연계로 유통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비축기지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저장·물류 기술 혁신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식량 안보뿐 아니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준다. 대형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의미도 크다. 최 의원의 지적처럼 '전남은 단순한 후보지를 넘어 전략 거점'인 셈이다.

효율적인 농산물 비축 역량 제고는 현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에 공공비축기지를 설립해 인구감소와 농촌소멸, 기후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남도 또한 전남이 남부권 식량안보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기지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비축기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적 식량 자급률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



@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서석대



200페이지 남짓 소설 한 편, 반나절이면 읽지. 과신했다. 한편으로는 너무 거창할까 염두가 나질 않았다고 해도 맞겠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그랬다. 광주에서는 지나다니다 보면 사적지고, 스치다 보면 유가족과 경험자들이다. 그 안에서 나는 잘 안다 자부할 수도 없고, 모른다 말하기는 염치가 없어 그저 묵묵히 5월을 보냈다.

왜인지 모르게 미뤄뒀던 '소년이 온다'를 모두 읽는데 꼬박 하루가 넘게 걸렸다. 반나절이면 읽겠다 싶었던 소설은 한 챕터를 지날 때마다 소화를 시켜야 했다. 한 챕터 안에서

부끄러운 봄

한 문단 한 문단이 목에 맺히고 가슴에 맺혀 속도가 나질 않았다. 끝내 도정에 남았던 중학생 동호와 어른거리던 정대의 혼. 그동안 '희생자'라고 기억됐던 인물들을 넘어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설상가상 모든 문장이 고비였다. '처음부터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살아남았지만, 살아 있는 것을 부정한다. 살아서는 안된다고 여긴다. 살아있는 것에 치를 떨고, 경멸하고, 괴로워한다. 매일이 장례식이 되어버렸다는 그들의 삶에 책을 읽고 있는 나조차 살아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진다. 비할 바짓나마는 지난 겨울 이 핑계 저 핑계로 한 번도 광장에 나서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까지 물려온다. 그 광장의 사람들이 나보다 바쁘지 않아서, 더 중요한 일정

이 없어서 그 자리에 방한포를 둘들 싸매고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소설 속 시민군의 말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양심이다.

부끄러운 봄을 지나 여름의 길목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대통령 선거를 맞이한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역시 통과된 레인 듯 5·18민주묘지를 찾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광주는 오늘도 헛헛한 숨을 삼켜낸다.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어대명' 분위기 속에서 유권자들의 혼란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기본적인 경쟁 구도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에서 정책 대결이 주목받으리 만무하다.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려는 듯 달려들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팔다리마저 쪼개 이권을 더 가져야겠다며 밤낮 없이 바쁜 분들도 계시다.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경제 복구 전략, 지역 균형 발전, 각 계층의 갈등 해소 등 정작 필요한 국가적 어젠다는 사라지는 분위기다. 이래저래 부끄러운 일 투성이다.

1980년 5월 광주를,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들의 정신이 지난 겨울 광장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믿었다. 그 정신은 국민들의 것만이어서는 안된다. 환호와 함께 흩어져 버려서도 안된다. 다음 정권을 두고 사활을 걸고 있는 모두가 더 이상 부끄러운 봄이 되지 않도록 국민을 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곽지혜 취재2부 기자